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첫째가는 계명

노랑아저씨. 명동밥집을 연 첫날부터 지금껏 찾아주시는 단골입니다. 아직 밥을 지을 수 없어 도시락을 드리던 초기에는 하나 더 받으려는 분들로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노랑아저씨도 가끔 그러셨죠. 하지만 당일 한정된 수량 탓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 3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는 요즘은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께 몇 번이고 원하시는 만큼 식사를 제공합니다. 어느 날, 식사 중인 노랑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수북이 담은 따뜻한 밥을 천천히 오래도록 정성껏 드시는 모습이 경건해 보였습니다. 배식 텐트를 가득 메운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김수환 추기경)

얼마 전 신문에서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 62%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비종교인의 82%가 종교의 사회적 기여를 낮게 평했습니다.(참고로, 그 조사에서 종교인 대 비종교인의 비율은 4 대 6이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자 신앙을 가진 건 아니지만, 2년째 이어지는 팬데믹에 교회가, 또 신앙인이자 사제로서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지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결국 우려하던 바를 마주한 것 같습니다.

큰물이 닥치는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살기 위해 높이 오르려 애쓰지만, 하느님은 낮은 곳, 인간의 곁으로 내려오신답니다. 그것이 강생육화의 신비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오늘 저 강생육화의 신비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오늘, 여기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그분의 뜻을 선포할 사명이 주어졌는데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마르 12,33)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흘러간 가요 중에 “오직 사랑뿐”이란 대목이 떠오릅니다. 역시 사랑 말고는 이 팬데믹 시대를 견딜 재간이 없는 거겠죠. 재난의 시대, 고통과 절망을 체험하는 이웃들에게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할 방법은 오직 그들 곁으로 다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특히 역사의 여러 기로에서마다 교회가 ‘교회의 보화인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길을 찾고 본 모습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선조들의 하느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첫째가는 계명’이지 않을까요.



서울숲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

아침 산책길에 만난 정겨운 모습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걸어야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빈 휠체어를 밀고 가는 옆 사람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더운 동반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윤순 젤마나 | 가톨릭사진가회